2027학년도 동국대학교 수시 논술 대비

논술 예상 문항 문제지

(인문계열) [세트 1]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고 푸십시오.
2. 문제지는 총 5 쪽(표지 제외)이며, 문항과 배점·분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1 (30점, 320~400자) 문제 2 (30점, 320~400자) 문제 3 (40점, 560~700자)
3.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칸에 작성합니다.
4.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셉니다.
5.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6. 이 문제지는 동국대학교 2027학년도 대비 모의논술 형식을 바탕으로 포도논술이 만든 예상 문항입니다. 동국대학교가 출제하거나 공개한 문항이 아닙니다.
7. 작성한 답안을 포도논술(podotools.net/essay)에 입력하면 세 문제를 한 번에 채점·첨삭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가】 사르트르는 인간에게는 미리 정해진 본질이 없으며,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함으로써 자신을 만들어 간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은 스스로 만드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이며,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무거운 자유와 책임 앞에서 불안을 느끼고, 자신의 행동을 환경이나 성격, 남의 탓으로 돌리며 마치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굴기도 한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태도를 자기기만이라고 불렀다. 비겁한 사람도 비겁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행동함으로써 비겁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할지는 여전히 각자의 몫이다.

【나】 미국의 사회학자 머튼은 사회가 구성원에게 추구하라고 내세우는 문화적 목표와, 그 목표에 이르는 길로 허용하는 제도적 수단 사이에 괴리가 생긴 상태를 아노미라고 보았다. 이런 상태에서 개인은 여러 방식으로 적응한다. 목표와 수단을 모두 받아들이는 동조, 목표는 받아들이되 정당하지 않은 수단을 쓰는 혁신, 목표는 잊은 채 정해진 절차만 지키는 의례주의, 목표와 수단을 모두 포기하고 사회에서 물러나는 도피주의, 기존의 목표와 수단을 거부하고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세우려는 반역이 그것이다. 머튼은 도피주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사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회에 속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표현하였다.

【다】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홧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요,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이 조선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알았소? 팔자가 좋아서 조선에 태어났지, 딴 나라에 났더면 술이나 얻어먹을 수 있나…"

사회란 무엇인가? 아내는 또 알 수가 없었다. 어찌하였든 딴 나라에는 없고 조선에만 있는 요릿집 이름이어니 한다.

"조선에 있어도 아니 다니면 그만이지요."

(중략)

"여기 회를 하나 꾸민다 합시다. 거기 모이는 사람놈 치고 처음은 민족을 위하느니, 사회를 위하느니 그러는데, 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느니 아니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하다가 단 이틀이 못 되어, 단 이틀이 못 되어…"

한층 소리를 높이며 손가락을 하나씩 둘씩 꼽으며,

"되지 못한 명예 싸움, 쓸데없는 지위 다툼질, 내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내 권리가 많으니 네 권리 적으니… 밤낮으로 서로 찢고 뜯고 하지,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소."

(중략)

"그 몹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

(현진건, 술 권하는 사회)

【라】 마르틴 부버는 인간이 세계와 맺는 관계를 '나-그것'과 '나-너'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나-그것'의 관계에서 상대는 내가 알고, 이용하고, 판단하는 대상에 머문다. 반면 '나-너'의 관계에서 나는 상대를 어떤 쓸모나 특성으로 환원하지 않고 온전한 인격으로 마주한다. 부버는 참된 삶은 만남에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사람은 '너'와의 만남 속에서 비로소 참된 '나'가 된다. 이러한 만남은 상대를 미리 정해 둔 틀로 재단하지 않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며 응답할 때 이루어진다. 부버는 대화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일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만남이 일어나는 자리를 '사이'라고 불렀다. 참된 관계는 내 안이나 상대 안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서 생겨난다는 것이다. 물론 사람은 살아가면서 상대를 알고 이용하는 '나-그것'의 관계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나-그것'으로만 채워지면 사람은 상대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게

된다.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를 설득하거나 이겨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서로가 처한 자리를 드러내고 받아들이는 대화를 나눌 때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

[문제 1] 제시문【가】와 【나】의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고, 【다】와 【라】에 나타난 인간관을 각각 기술한 후, 이와 같은 인간관을 바탕으로 【가】를 비판하시오. [30점, 320~400자]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가】 구두장이 알랴힌의 집에 도제로 들어간 지 석 달째 되는 아홉 살 반카는 성탄 전야에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쓴다. 편지에는 배고픔과 매질을 견디기 어려우니 시골로 데려가 달라는 호소가 가득하다.

"그리고 어제는 혼쭐이 났어요. 주인이 제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어내더니 구둣골로 마구 때렸어요. 주인네 아기의 요람을 흔들다가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거든요."

(중략)

반카는 봉투에 '시골 할아버지께'라고만 적은 편지를 가장 가까운 우체통에 밀어 넣고, 달콤한 희망에 젖어 잠들었다.

(체호프, 반카)

【나】 한 보험 회사가 보험금 청구 심사를 인공 지능에 맡겼다는 가상의 사례를 생각해 보자. 인공 지능은 수십만 건의 과거 청구 기록을 학습하여 몇 분 만에 지급 여부를 판정하고, 회사는 심사 인력을 크게 줄였다. 회사는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이 줄었다며 만족했지만, 비슷한 조건의 청구인데도 판정이 엇갈린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그런데 지급을 거절당한 한 고객이 그 이유를 묻자, 담당 직원도 인공 지능이 왜 그런 판정을 내렸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인공 지능을 만든 업체는 최종 결정은 보험 회사가 한다고 하고, 보험 회사는 인공 지능의 판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하였다. 결국 그 판정을 책임지고 바로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 근대 산업 사회 초기에는 어린이들도 공장과 작업장에서 어른과 다름없이 오랜 시간 일하였다. 어린이는 스스로 근로 조건을 따지거나 부당한 대우에 맞서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나라는 법으로 어린이의 노동을 제한하고 보호한다. 우리나라의 근로 기준법도 15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쓰지 못하게 하고, 18세 미만인 연소 근로자에게는 위험한 일과 야간 근로를 제한한다. 또한 사용자가 어떤 이유로든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게 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한다. 또한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 맺을 수 없도록 하여, 어른이 아이의 노동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한다. 법은 이처럼 힘이 약한 근로자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배로부터 보호한다.

【라】 아동 복지는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동 복지 제도는 아동을 단지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가진 주체로 본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에게는 국가와 지역 사회가 보호자의 역할을 나누어 맡는다. 학대가 의심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전문 기관이 아동의 상황을 살펴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연결한다. 또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위기에 처한 아동의 목소리가 어른에게 닿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도 아동 복지의 중요한 역할이다.

【마】 한스 요나스는 현대 과학 기술이 인간 행위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다고 보았다. 오늘날 기술을 이용한 행위는 수많은 사람과 기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먼 곳과 먼 미래에까지 미친다.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의 잘잘못을 따지는 사후적 책임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술을 만들고 쓰는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대비하는 미래 지향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행위의 결과가 불확실할 때에는 좋은 전망보다 나쁜 전망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기술의 힘이 강력해질수록 그 힘을 가진 사람의 책임도 커진다. 이러한 입장을 책임 윤리라고 한다.

[문제 2] 제시문【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 【라】를 바탕으로 서술하고, 【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30점, 320~400자]

[문제 3]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가】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와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 국토 면적의 8분의 1 정도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지방의 여러 중소도시에서는 젊은 인구가 줄고 문을 닫는 학교와 상가가 늘어나고 버스 노선이 줄어드는 곳도 생겨,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반대로 수도권에서는 높은 집값과 교통 혼잡 같은 문제가 커지고 있다.

【나】 영국의 경제학자 마셜은 같은 업종의 기업들이 한 지역에 모이면 숙련된 노동자를 구하기 쉽고,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가까이 생기며, 기술과 정보가 빠르게 퍼진다고 보았다. 그는 이런 곳에서는 업계의 비밀이 마치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다고 표현하였다. 이처럼 기업과 인구가 한곳에 모일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집적 경제라고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이미 많이 모인 곳을 찾아가는 것은 효율을 좇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다】 스웨덴의 경제학자 뮈르달은 먼저 성장한 지역이 다른 지역의 자본과 젊은 노동력을 빨아들여 지역 간 격차가 점점 커진다고 보고, 이를 역류 효과라고 하였다. 성장의 혜택이 주변으로 퍼져 나가는 파급 효과도 있지만, 시장에 맡겨 두면 대개 역류 효과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격차를 시장에 맡겨 둘 수 없으므로 국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고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고르게 나누어야 한다.

【라】 지방 소도시에서 나고 자란 박지훈 씨는 고향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해 왔지만, 주요 거래처가 수도권으로 옮겨 가면서 공장이 문을 닫았다. 고향의 임금은 서울보다 낮고, 근처에서 비슷한 공장을 찾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서울의 한 회사에서는 지금보다 높은 임금을 제안받았지만, 그는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곁에서 돌보아야 한다. 고향에 남아 비슷한 일자리를 찾을지, 부모님을 두고 서울로 떠날지 그는 고민하고 있다.

【마】 인도 출신의 경제학자 센은 발전을 국민 소득이나 생산량의 증가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발전이란 사람들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실제로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실질적 자유, 곧 역량이 커지는 과정이다. 소득이 같더라도 교육을 받을 기회,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없다면 그 사람이 고를 수 있는 삶은 좁아진다. 센은 기근 연구에서, 식량이 부족하지 않은 곳에서도 사람들이 식량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잃으면 굶주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발전의 정도는 평균 소득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사는 곳에 따라 이러한 기회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단지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이다. 또한 센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남이 대신 정해 줄 수 없으며, 사람들이 공적인 토론에 참여하여 함께 정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개인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는 일은 개인과 사회, 국가가 함께 져야 할 몫이다.

[문제 3] 제시문【가】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나】와 【다】의 관점에서 오늘의 지역 격차 문제를 바라볼 때 드러나는 입장 차이를 밝히시오. 그리고 【나】와 【다】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마】의 관점에 근거하여 【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서술하시오. [40점, 560~700자]

〈끝〉